



순례

해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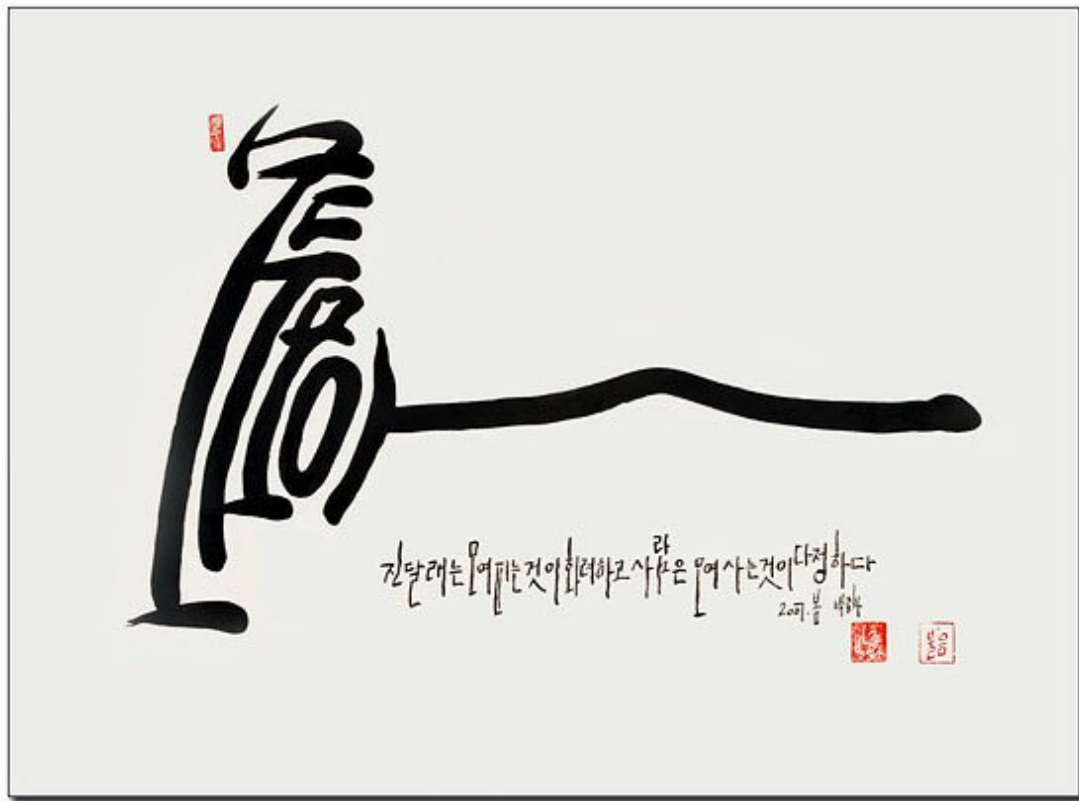
소개글

폭염 속에서도 놓지 않은 민중의 삶과 국민촛불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말처럼
지금 국정원 부정선거와 진보당 시민사회 공안탄압을 이겨야 되겠죠.
지역을 넘어 SNS로 소통하는 시대를 살면서 시로 쓴 나의 노래입니다^^

목차

1	내게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5
2	진보당 살아 있네 나의 꿈도 함께	7
3	힘내자 금속노조여 이 나라 노동자여	9
4	나도 시국선언, 힘내라 민주주의	11
5	때로 마을공동체가 그리워진다	13
6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15
7	인문학 강좌가 왜 소중한가	17
8	아픔과 기쁨 사이 새벽길에서	19
9	초목과 멀어진 내 삶을 돌아보며	21
10	지상에서 하늘로 타오르는 그리움	23
11	시인에게 벗이 된 검은 고양이	25
12	별이 진 뒤에야 떠오르는 소원처럼	27
13	자 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잡고	29
14	700리 낙동강물이 썩고 있다	31
15	가야산 소리길에 바치는 시	33
16	힘들고 지쳤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	35
17	다시 8월처럼 살자고 노래하자	37
18	그리워 불러보는 이름 봉선화	39
19	새벽노을에 띄우는 내 마음은	41
20	무지개는 누구의 가슴에 뜨는가	43
21	꽃 진다고 설워마라 다시 핀다	45
22	줄이 쳐들어가면 궁이 무너진다	47
23	입추를 맞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	49
24	배낭을 벗을 날은 언제나일까	51
25	산악회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53

26	작은 것이 다시 아름답다	56
27	함께라면 험한 길도 즐거워라	58
28	내게 광복절이 기쁘지 않은 이유	60
29	찾아가는 음악회에 뭔가 빠졌다	62
30	내가 살고 싶은 내일은 온다	64
31	담배 한대 피우며 돌아보니	66
32	그 세월을 원상회복하는 중에	68
33	나도 외친다 그 사람을 단죄하라	70
34	지역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72
35	국밥 한 그릇에 힘이 솟는 날	74
36	산은 내게 공동선을 이루라 하네	76
37	대통령 경호실 통영의 추억이란	78
38	탄압의 광풍 몰아쳐도 갈길은 간다	80
39	마산 어시장 오늘만 같아라	82
40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여	84
41	먼 훗날 추억으로 남겨두고픈	86
42	방사능 불안은 어시장뿐 아니다	88
43	우리는 어차피 한배의 운명이니	90
44	가을은 서정적으로 오지 않네	92
45	다시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94
46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고 싶다	96
47	여러분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98
48	나를 지켜가는 하루를 살자	100



내게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생의 순례라 하자
벗 하나 소중히 여기고
사귀를 이어간다

친구와 점심 먹으며
공동체를 논했고
근래 못 본 후배들
직장에 들렀다

휴가를 떠난 정만이
근무처를 옮긴 희선이
무척 더운 장마철
빈 발걸음 해도 좋다

저녁때 창동레지던스
미술 강좌를 듣고
산악회 회의에 참석
가야산으로 정했다

오동동 밤거리 술집에
모여 앉아 뒷풀이
돌아와서 야옹이밥
챙기고 씻고 누웠다

공공노조 사무실에서
소책자를 읽다가
문득 순례가 떠올랐다
만남에 의미를 두자



진보당 살아 있네 나의 꿈도 함께

한낮 폭염에 잠시 누웠다가
깨어나 보니 밤중이다
몸이 내 마음같지 않아서
국정원 규탄 촛불도
정당연설회도 놓치다니
올 여름이 고비다
페이스북 경남도당에
올라온 사진 한장이

지친 심신을 달래준다
통합진보당의 뿌리인 분회를
직접 찾고 챙기는
이정희 당대표가 반갑다
봉림지회 열개 분회를
당원과 함께 일구는
그 열정이 세상을 바꾼다
시인도 따라가야지
카메라를 배낭을 메고
늘상 다니다 보니
어깨가 편할 날 없다
온오프로 무섭게 타오르는
박근혜 메이드인 국정원
시국선언은 촛불은
99% 서민들의 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킬 피플파워다
그 길에 진보당이 나섰다



힘내자 금속노조여 이 나라 노동자여

폭염을 뚫고 우리는 모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40여개 지회가
조여오는 탄압에 맞서
다시 머리띠를 묶고
창원 중앙로에서
2013 임단투 승리를 위하여
파업가를 외쳐 불렀다

S&T중공업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삭스코리아
한국지엠 현대위아 등등
기름밥 동지여
철의 노동자들이여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몸벽보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요구가
가슴을 찼다
창원대로를 행진했던 오늘
저 87년 7,8,9 투쟁이
마창노련의 역사가
기억 속에 되살아왔다
우리 그날처럼
단결투쟁가를 힘껏 부르며
해방춤 추며
총파업을 결의하였던
부분파업의 날에
노동자는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나도 시국선언, 힘내라 민주주의

창원 촛불이 커졌다
시민들의 합세
표창원 교수 거리강연
야4당 공동투쟁
어제에 이어 오늘
규탄 열기는 더 뜨겁다
"국정원 해체"
"바뀐애 방빼라"

구호가 등장했다
스마트폰으로
풋볼 소식이 속속
전해져 온다
짱돌 화염병 쇠파이프
그 시절과 달리
축제 분위기이다
정우상가에서
상남시장 분수광장까지
분노의 행진을 했다
1차 2차 3차로
계속 타올라간다
유신세대 87년 세대
2천년 세대까지
다 들고 일어섰다
풋볼항쟁이다
시국선언으로 시작돼
전국으로 불붙었다
"역사의 명령,
파괴된 정의를 복구하라"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
장마비도 폭염도
풋볼을 끝 수 없다



때로 마을공동체가 그리워진다

빈집에서 매미가 운다
사람은 떠나고
크게 자란 나무만이
낡은 집을 지킨다
재개발지역엔
셋방 내놓은 데도 많고
빈땅 여기저기
텃밭을 일궈놓았다

작은 풀꽃들 피고
새소리 들리는
오래 된 동네 석전동
내 마음갈아선
38층 아파트보다
이웃의 정이 살아 숨쉬는
마을만들기가 필요해
빡빡한 도시살이
요즘 들어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옛 집 옛 동네가
훗날 그리워지지
저 빈집에서 울어예는
매미소리가 아프다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영전강을 아시나요?

MB가 저지른

4대강 사기극 말고도

영어몰입교육

첫 삼짇 요란터니

박근혜때

4년째 근무 영어강사들

526명 선생님을

해고통보한
교육부가 미쳤지요
재계약도
근무경력도 인정않는
학교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영전강이랍니다
사교육을 없애자던
교과과정이
일회용이었지요
"해고 철회!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안정 보장!"
성난 외침이
내 가슴을 때립니다
학교는 죽었다던
말이 맞죠
저 명박근혜의 꿈수가
학교 교육마저
농락하는 꼴입니다
오늘도 도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가를
다함께 부르며
주먹 불끈 쥐었지요
내일도 학비 영전강은
1인시위 소복시위
결의대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인문학 강좌가 왜 소중한가

장마철 폭염을 식히려
마산 댕거리
합포도서관 앞
공원 벤치에서 쉬며
비둘기들에게
내 배낭 속 비상식량을
꺼내서 나눠주다
저녁 무렵

민교협 인문학교실
제27회 주제
경남대 김정대교수의
'땅이름의 역사'
시민강좌를 듣다
세종때 경상도지리지에
나온 마산포란 지명이
마산의 첫 자료다
그후 일제하를 거쳐
통합창원시가 된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이름 변천사를 알다
2년을 훌쩍 넘긴
인문학 강좌가
존재의 이유를 깨우치다
심소정에서
막걸리 찌짐 놓고
뒷풀이를 갖다
NGO포럼 주관으로
교수 시인 시민이 함께
늦깎이 공부를 하는
인문학 시민강좌에서
더불어삶을 배우다



아픔과 기쁨 사이 새벽길에서

새벽 4시 이 시간은
예사롭지 않다

만인을 깨우는 쇠북소리
어둠 속에 울린다
겨울공화국과 맞섰던
고난의 시절을
언뜻 떠올리게 한다
오늘도 시국선언이
촛불집회가 계속된다
조급해 하면 진다
더 커져야지
맘속으로 다짐해 본다
야생초가 피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여름 휴가철이건만
사람들은
거리로 나선다
다시 시대의 새벽을
노래부르는 이들
그 힘들이 모여
헌법 제1조를 지킨다



초목과 멀어진 내 삶을 돌아보며

앗 언제 당귀꽃이 피었지
씨앗이 흘러왔는가
잡초들과 함께 어울려
흰색 꽃을 달았구나
개당귀 독초지만
내 보기엔 아름다워라
폭염의 한여름
골목길에서 마주친

야생초가 반갑네
예전엔 영지버섯을 찾아서
숲속으로 가곤 했건만
요즘 야성을 잃었지
산에들에 피어나는
풀 하나에 깃든 이야기
오랜 삶의 지혜거늘
소홀히 여겼됐다
감옥에서 쓴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다시 꺼내 읽을까
내 몸살림을 하자면
친해져야 할
온갖 초목들을 일깨워 준
저 당귀꽃이 소중타



지상에서 하늘로 타오르는 그리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기에
사무치도록 빛나는가
오늘따라 저 달이
보름달처럼 애달프구나
고공농성 철탑에도
혜화동 성당 종탑에도
옥탑방 위에도

잠 못 들게 떠 있는가
불평등은 갈수록
깊은 골을 만들었고
99%의 분노는
끝끝내 타오르건만
사람사는 세상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저 달은
잊어서도 안될
그리운 얼굴들이다
희망버스다 촛불이다
언젠가 이를
통일조국의 꿈이다
오늘도 내일도
내 가슴에 달빛은 탄다



시인에게 벗이 된 검은 고양이

한번 맺은 인연은 질기다
사람도 야옹이도
정이 들면 더 그렇다
마산에 폭설이
줄곧 쏟아졌던 겨울날
검은 고양이 어미가
폐가에서 여섯 마리를 낳고
봄에 넷이 죽고

검정기와 얼룩이가
용케 살아 남았다
다락방 종이박스에서
새끼 둘을 곁에 누인 채
굳어져 버린 그 모습이
내내 잊히지 않는다
꼭 제 어미를 닮은
그때 검정기가
어린 것 셋을 키운다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
밥은 챙겨 줘야지
고산의 오우가도 좋지만
밤을 지새우며
시를 쓰는 나에게는
야옹이도 정든 벗이다



별이 진 뒤에야 떠오르는 소원처럼

긴급조치 1호 장준하 선생
돌베개의 세월이었네
겨레장을 치르고 다시 잠든
민족지도자의 오늘
그간 고통 속에서도
자리도 돈도 마다한 채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는

유지를 받들며
버텼던 유가족이
민사소송 비용이 없어
국가상대 재판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헤아릴 수 없이
휘날린 추모의 깃발들
39년만의 무죄판결
민주 통일의 뜻이
우리의 가슴에
진정 메아리치고 있는가
소시민의 제안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원과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유신독재가 저지른
약사봉 의문사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아픔은 끝나지 않았어라

다섯, 성큼 다가오는 통일 ~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든 평화와 통일의 공동선언, 6.15와 10.4

금강산 관광



자 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잡고

그립습니다 평화와 통일

그날이 사무칩니다

창원 평화대회에 가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내 가슴에 새겼던

6.15와 10.4 공동선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새삼 보고봤습니다

내 사랑 한반도가
정전 60년을 맞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지요
국정원 해체 촛불을 켜고
외친 민주수호의 열망
평화협정 체결과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오랫만에 민족대단결가를
손뼉을 치며 불렀던
창원 정우상가 앞 거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이산가족 상봉의 그날이
남누리 북누리 열싸 안고
단일기를 흔든 감격이
되살아 왔습니다
분단은 60년이지만
7천만 겨레가 사는 날은
역만년이리니
평화의 길 통일의 길
민족번영의 길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 녹슬은 철조망을
오늘 싹뚫 잘랐습니다



700리 낙동강물이 썩고 있다

4대강을 생각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깨 보니 하현달이 떴다
윤동주 시인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맘 먹을까
생명의 강이
녹조 적조로 변해
죽음의 강으로
우리 눈 앞에 또렷하다
반드시 살려야 하오
명령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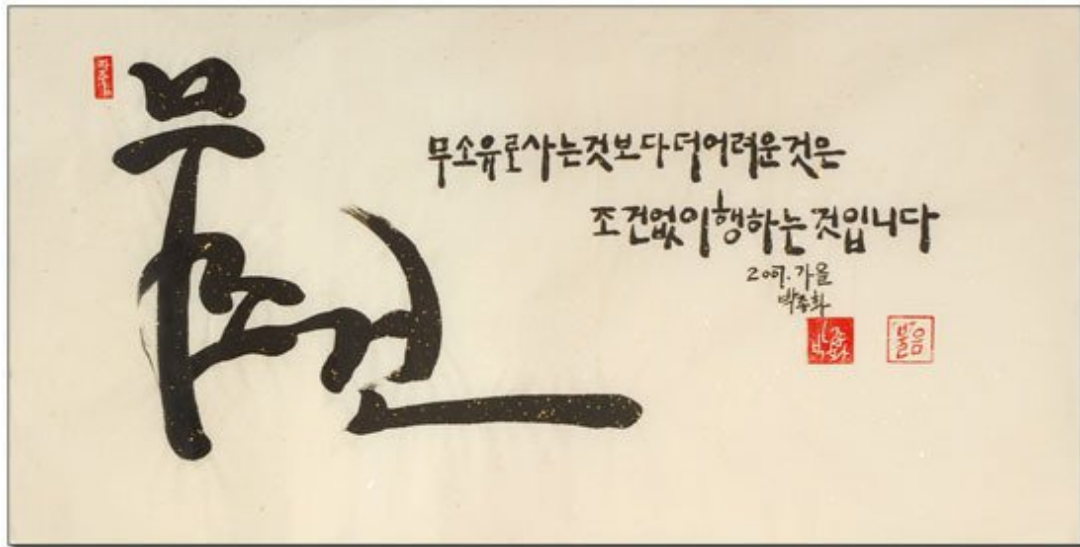
내리고 싶건만
낙동강을 돌아보라
숨이 막혀
물고기도 못 산다
22조원 혈세도
건설노동자 목숨도
다 헛되었다
복원하려면 100년이나
걸릴지 모른다
또 큰비가 쏟아지면
보는 터지고
다리는 무너질테지
한동안 잊고 지낸
4대강 악몽이
다시 나를 괴롭힌다



가야산 소리길에 바치는 시

비내리는 길을 달려와
오늘에야 만났네
가야산 소리길
깊고 긴 홍류동 계곡
논고동 살아 있는
벼논들을 지나
죽 따라 올라가며
나는 무엇을

보았고 깨우쳤는가
못 생명의 소리
아우성치듯 들려오던
해인사 들머리
술한 이들의 숨결이
비원처럼 스몄네
꽃이 떨어지는 소
낙화담에서
오래 머물고 싶었네
나뭇잎에 듣는
빗방울 소리 하나
경이로운 이 길
천고의 세월
아픈 역사의 상처일랑
어루만져 주는가
오래 된 인연인 양
길손을 반겨 맞는
가야산 소리길
홍류동 계곡에서
내 마음도 붉게 타네



힘들고 지쳤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

한때는 무소유를 동경했다
즐거분한 삶의 길이
법정스님의 실천에서
그 정신이 영롱하게 빛났기에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무조건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조건없이 행하는 것
각박한 세태에
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살이 좌우명인가
베룩과 나눔이
절실해지는 우리시대에
내가 가진 것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가 아쉽다

최고운 작가가
1인활동가 숲속홍길동이
외롭게 숨져갈 때
뉘 있어 도움을 줬던가
장준하 선생 유족이
민사소송 비용이 없어
애를 태울 때도
우리는 무심하였다
정작 위태로운 내 이웃에게
사느라 바쁜 핑계로
한 사람을 외면하였다
없이 지낼지라도
더불어살 세상이 그림다
무조건이란 경구가
오래 머릿 속을 맴돈다



민중의소리 Copyright 2013 All rights reserved 619 by CHOI MIN

나뭇잎에 바람이 인다
비가 올 모양인가
풀벌레들 울어쉴는 동네
가로등만 밝고
예 오르던 뒷산 봉화산에는
밤안개 자욱하구나
다시 새벽이 밝아오려니
세상은 바뀔까
3.15, 4.19 그때처럼
민이가 승리할까
또 한번 거세게 요동칠
8월이 시작되었다
긴급조치 재심
법원등기를 기다리는
내 가슴도 뚫다
세월이 멀리 왔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첫 마음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세상 자유이다
마산교구청 사제단이
시국선언을 했다지
예사롭지 않은
저항의 계절이다
99%의 삶이야 고단해도
희망은 살아 있지
휴가철에도
춧볼은 타오를테다



그리워 불러보는 이름 봉선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노래가 생각난다
내 어릴 적부터 불렀던
민족의 한이 서린
그 꽃에 맺힌
설움이 되살아오네
붉은 피눈물처럼
가슴에 사무친

하 많은 사연인들
차마 잊힐 리야
해방 이후 전쟁을 겪고
갈라진 산하에
너는 다시 피었건만
부끄러워라
우리 겨레 넘보는
미국놈 등살에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네 모양이
처량해 보인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너를 반겨 놀았던
부모형제들
민초의 삶이야
고단하기만 하구나
시련을 뚫고 솟아난
봉선화에 깃든
저항의 혼을
내 오늘 그리노라



새벽노을에 띄우는 내 마음은

밤새 열대야에 뒤척이다
새벽길 나섰더니
동녘 하늘에
분홍빛 노을이 타네
맘 갈아선 산에서
일출을 봤으면
오죽 좋았겠나 싶지만
휴가도 없는 신세라

길 위에서
새벽노을을 촬영하다 보니
동트는 새벽에
가열찬 투쟁정신 으샤
노래하던 그날들이
문득 그리워졌네
세월도 사람도
변해가기 마련이거니
이제는 추억으로
아로새겨야 하는가
젊은 날처럼
투쟁의 격랑 속으로
뛰어들고 싶건만
아직도 투사의 노래는
내 가슴에 울리건만
하루의 삶에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시인노릇도 힘겹네
울 가을까지라도
별탈없이 버텨야겠거늘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기 위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무지개는 누구의 가슴에 뜨는가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다
울 여름 장마 끝 마산에
쏟아진 세찬 비
퇴근 무렵에 그치자
앗 무지개
오랫만에 났구나
헛헛한 가슴을 채워 줄

무슨 기쁜 일이라도
생기려는가
괜스레 설레이는 마음이란
숨길 수 없거늘
아스라이 떠오르는
바닷가 고향마을
어린 자식들을 키우던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게 안겨오는가
각박한 도시살이에
보기 드물게
숫아오른 무지개 반갑다
춧불을 점화하듯
내 마음도 함께 탄다



꽃 진다고 설워마라 다시 핀다

달도 별도 사라진
열대야의 밤
찬물 좀 끼얹었더니
웬 감기가 오나
배낭 속에 둔
아스피린 찾아 먹었다
의료보험증은
아직 한번도 안썼다

체납돼도 좋다
이상증세 몸보다
맘 아프게 하는
미친 세상이
더 큰일이 아닌가
밤길을 걸으며
내가 골똘히 생각는
시 한 편이
심신을 치유한다
새벽 4시경
시인의 할 일을
마치고 쓰다



줄이 쳐들어가면 궁이 무너진다

그때 유신시대는 그랬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참지 못해 일렁이던
대숲의 바람소리까지
잡아 가뒀던 70년대였다
저도의 추억이라면
유신의 추억인가
다시 못을 그 시절을
왜 꺼집어 낼까

바닷가 모래 위에
곶게 써내려 간
자식이 부모님을 그리는
심정이야 뭐랄까만
휴가철임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난 민심은
시국선언은 끝내
퇴진 요구까지
터져나오고 말았다
계엄을 선포하고
긴급조치를
다시 발동시킨다 한들
촛불을 끌 수 없다
푸른 기와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신시대는 악몽이었다
빼앗길 수 없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거리로 나선다



입추를 맞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

동네 텃밭가에 활짝 핀
샛노란 호박꽃이
내게 인사를 건넨다
입추날 더위에
땀이 줄줄 흘러도
시인에게 반가운 이웃이다
정든 검은 고양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도시농업 풍경이다
오가며 자주 보는
상추 고추 깻잎
옥수수 결명 가지 등
찬거리가 고맙다
시외로 나가면
푸른 논밭들 만나련만
오늘도 웹 검색하고
아는 이들 찾아서
볼 일을 봐야 한다
가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산천초목도 매한가지다
울 여름을 마저 넘자
친구 녀석 만나서
저녁을 먹고 일요일에는
성당 교리반에
나가봐야 할까 부다



배낭을 벗을 날은 언제나일까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지
너무 오래 머물렀다
가을쯤 해서
시인 사무실 하나 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협동조합을 준비하자
13번째 시집 출판

기념회도 열어보자
한밤중 김밥 두 줄로
또 하루를 버텼다
새끼 셋을 둔
검은고양이 먹이마저
건너뒀 뻘뻘했다
8월 중 재심 재판
아니면 9월 중이라도
10월 중 시집 인쇄
숨가쁜 일정이
들어맞기를 바란다
부산 경남 서울
문화행사에도 가 보자
울 여름은 나에게도
잔인한 계절이다
종일 폭염 속에 누웠다가
술 한잔 하고 깨어나
시 한 편을 남긴다



산악회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정이 넘어서야 나왔다
낮도 밤도 덥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여기저기 행사에도
가 봐야 되는데
폭염에 망설여졌다
저녁무렵 산악회 회의차
오동동 아구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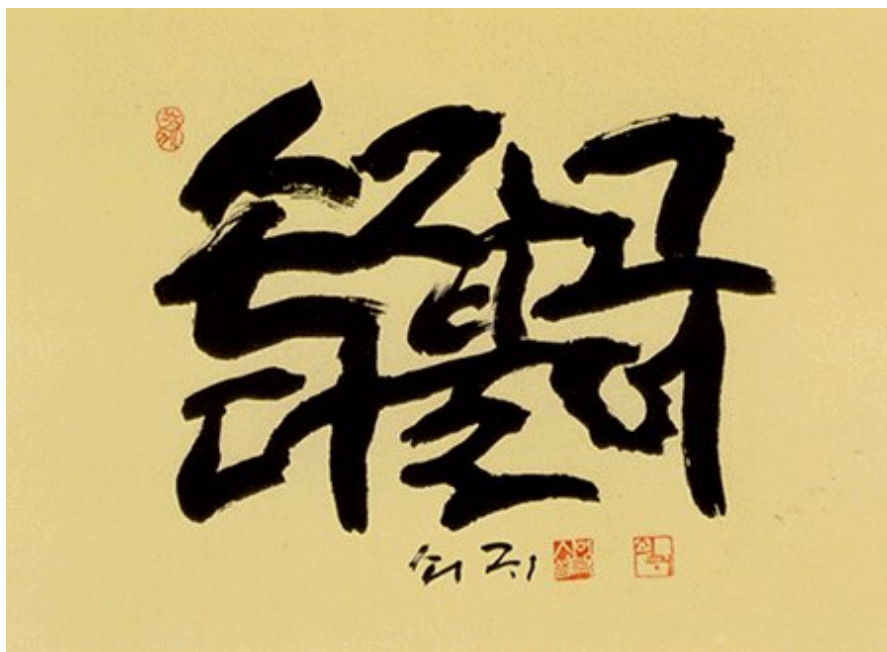
녹두삼계탕을
먹었더니 좀 낫다
포항 천령산 보경사로
산행하기로 됐다
775m 정상에서 폭포쪽으로
계곡코스를 택했다
배낭을 내려놓고 쉬며
왜 산에 가는가를
되돌아 보았다
내겐 등산도 순례다
아득한 옛적부터
산들강 마을이 어우러져
삶을 일구어왔거늘
발걸음 하나
깨달음의 여정이리라
홀로 가든 여럿이 가든
산으로 드는 사람들
마음에 달렸다
밥과 술을 함께 들더라도
산행길에 갇들인
참뜻을 간직하고 싶다



작은 것이 다시 아름답다

침엔 몰랐다 땡갈을
물어서 알고 보니
작고 까만 열매에 담긴
추억도 많더라
늘 앉아 쉬던 텃밭가
그 자리 야생초가
까마중이었더라
검은고양이에게도

그늘막이 됐다
달콤시큼한 옛 맛에서
잊고 지내는
풀꽃나무의 존재가
새삼 반가웠다
땡깥꽃이
아기자기하게 피었고
꿀벌이 날아든다
갯잎같은 잎사귀도
친근해진다
약이 되는 열매들
내 곁에 있었고
이름 하나도 재밌는
텃밭의 땡깥이
아름다운 이유다



함께라면 험한 길도 즐거워라

누가 알려주었나
이 길을 가자고
시련의 날이
끝없이 이어져도
첫 마음을 꼭 간직하고
진보의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민중이어라
99% 서민이어라
민중 속에서 울고 웃는
당원들이여라
피눈물 분노를 삼키며
심장 속에 살아 있는
사람사는 세상

자춧빛 꿈을 위하여
길을 나섰네
그 어떤 탄압도
분열의 음모도
끝내 이겨낼지니
자주통일의 그날까지
진보당의 깃발은
나부끼리니
이정희 대표와 함께
너도 달려가고
나도 달려가야지



내게 광복절이 기쁘지 않은 이유

개성공단이 정상화됐단다
통일의 불씨를 살린
수만 촛불의 간절함이다
할머니들 원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자주 평화의 함성과 행진이
서울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거리에서
펼쳐지는 광복 68주년

평화협정을
목놓아 부르건만
을지훈련은 계속된단다
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통곡의 역사도
채 해결하지 못했다
유신회귀 공안탄압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국헌 문란을 비호하려 한다
헌법 제1조를
유린한 부정선거이다
슬픈 자화상이다
그러니 이 땅의 분노는
폭염보다 더 뜨겁다
자유로운 이는
그 누구도 없는 오늘이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뭔가 빠졌다

동네 노래자랑이 한창이다
노인네들이 많이 왔다
박근혜 공약은 지켰던가
노인연금 20만원도
끝장나 버렸는데 웬 미련일까
한여름밤의 음악회에서
왜 이 생각이 났는지
당산나무에게 물어보라

산전수전 겪으며
오래 지켜온 저 어르신은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문화복지라면 오죽 좋겠나
주민들 스스로 뭉쳐
신명나게 펼치는
문화제가 마냥 그리워
사진만 찍고 왔다
저 푸른내서주민회처럼
마을만들기를 할
일꾼이 아쉬워지는 오늘이다
이제 바뀌어야 산다
재개발이 되면
몇백년 나무인들 무사할까
또 속지 않으려면
한번쯤 거꾸로 따져 보자



내가 살고 싶은 내일은 온다

공동체 사업을 꿈꾸며
저기 보이는 성당
교리반에 다시 들어간다
더불어삶을 위하여
신앙을 갖기로 한다
새천년 그 무렵
영세 받기 직전에
관두고 말았던 그곳

그새 많이 달라졌지만
반겨맞는 이들
축하인사도 건네준다
총회장을 지냈던
친구 녀석의 인도로
시인이 신자가 될 양이다
신앙공동체도 좋다
협동조합도 해 보겠다
종교는 두루 사건다
거리로 나서라던
새 교황이 맘에 든다
잇따른 사제단 시국선언
시국미사가 찡하다
울 여름 고비는 넘겼다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다른 세상을 찾아
새롭게 길을 나선다
앞서 간 발자욱을 딛고
묵묵히 걸어가야겠다



담배 한대 피우며 돌아보니

내겐 낮과 밤이 따로 없다
새벽 3시의 거리
폭염도 잠든 이 시각
어제 본 상현달이
보름달로 두둥실 떴다
저녁에 문상갔다가
술 깨고 일어나
뉴스를 죽 살펴본다

페북 좋아요를 누르고
시 구상도 한다
내일 일정을 챙기고
명함을 입력한다
저장된 사진들 중에서
버릴 건 지워버린다
가만 생각해 보니
닥쳐온 재앙은
지구온난화만이 아니다
4대강 적조 확산
물고기 가축 폐사보다
더욱 심각한 게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18대 대선 부정선거
한미연합 UFG
핵선제공격 전쟁연습
두 개의 이슈가
오늘 태풍의 핵이다
환장하게 달은 밝건만
세상은 깜깜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다



그 세월을 원상회복하는 중에

나도 병원갈 때가 있구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오라기에 들렀다
아름다운 피부과
의약분업 되고 처음으로
자상한 진료를 받고
항생제와 물약을 샀다
의료보험증 낸 지

4달만에 써 보았다
한창 얘기하던 무상의료는
아직도 멀기만 한가
부자증세가 관건이지
오래 된 두피질환
교사시절때부터였으니
꽤 긴 세월이 흘렀다
그새 머리술도
듬성하게 변했구나
34년 전 앓기 시작한
머리피부 가려움과 함께
이날 이때까지 왔다
누구나 한 가지 병은
달고 살아간다 했거늘
내 몸이 보내는
경고랄 수 있겠지
주민증도 없이 지낸
그 세월이 아득하여라
긴급조치 9호 재심
신청 서류 덕분에
신분증명서를 갖추고
병원에도 가게 됐다
약 먹고 바르니
한결 낫아가는 기분이다
의료공공성 보장은
좀더 확충돼야겠지만
첫 방문 소감은 좋다



나도 외친다 그 사람을 단죄하라

살인마 전두환을 저격하는
영화 <26년>을 봤다
재산이 29만원이라 사기치고
활개치고 다니는
독재자의 뻔뻔한 얼굴
땡뉴스 TV를
누구라도 깨부술 만하다
먼훗날이 되어
가슴에 사무친 한은
부모 형제의 핏값으로
복수극을 펼쳤다

그때 그 자리
악몽의 순간을 목격한
자녀들이 커서
참회한 계엄군 김회장과
미진 진배 정혁이
분노로 행동하는 영화이다
속이 후련했다
또 26년이 흐를지라도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산 자들을 깨우쳐
빛고을 꽃넋들을 부른다



지역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폭염을 식히는 소나기처럼
밤하늘에 뜬 달처럼
백만인 서명에 함께 한 마음처럼
경남은행 독자생존을
반겨 맞이할 그날이여 오라
출근길에 은행 직원이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나눠준
신문 한장도 소중하여라

버스정류소 담벼락에 붙은
도민에게 드리는 글
노조 홍보물도 읽었네
모름지기 지역금융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법
경남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 놓은 경남은행을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말라
마른 하천에 물이 흐르듯
농작물에 생기가 돌듯
울 여름 시원한 그늘이 아쉽듯
지역민과 아름다운 동행은
경제가 살고 문화가 살고
더불어 사는 길일지니
저 핑크빛 빨강색 꽃잎이
조화를 이룬 비둘기 마크를
오고가는 사람들이여
따뜻한 눈길로 보아 주라



국밥 한 그릇에 힘이 솟는 날

토요일에 비가 내린다
동네 저 건너편
천주산 줄기에 비안개가
나를 반겨 맞는다
창원촛불 사진을
블로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산악회 정회장을 만나
국밥 한 그릇 먹다

내일은 천령산 계곡으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어제는 피부약을 먹고
밤새 잠에 폭 빠졌다
SNS로 새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댓글에 답글 해 준다
지금 건강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창동 검사검사 콘서트는
비땀에 미웠나 보다
하루 일기를 적듯
시 한 편으로 남기다



산은 내게 공동선을 이루라 하네

처서 지나니 벼가 익어간다
황금빛 들녘도 보인다
포항 천령산으로 떠난 산행길
숲속은 시원한 산림욕장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여럿이 함께 걷는다
매미소리가 교향악이다
야생초가 한 폭 그림이다

나무야 나무야 라고
말을 걸고 손을 잡는다
산줄기들 힘을 합쳐
봉우리 골짜기를 이뤘다
술한 사연들 간직한
돌멩이 한개 풀 한포기
아픈 역사의 자취인 양
조심스레 밟게 되는구나
10Km를 6시간 걸려
나 자신을 진단했다
산은 못 생명의 소리로
깨우침을 주고
우리를 품어 주었다
이제 더불어숨이 되어서
공동선을 이루자고
나직이 속삭여 주었다



대통령 경호실 통영의 추억이란

박근혜가 통영 오던 그날
대통령 경호 어땠나
1인시위 한점순 시의원을
폭행한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과를 받아내야 돼
VIP가 심기 불편할
피켓이라도 부수면 안되지
앞으로 나가려는
어떤 몸짓도 없었는데
명들고 찢긴 채
우리 앞에 선 얼굴
지역언론에 뒀다
한 사람의 합법시위가
인권이 짓밟혔어도
침묵한다면

통영의 미래는 없다
미친 공권력이 춤출 뿐이다
시의원도 안중에 없는
경호실 경찰은
공공의 적일 뿐이다
나도 총격받았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



탄압의 광풍 몰아쳐도 갈길은 간다

백기완선생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제1호 위헌
야만의 유신시대 그 시절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옛그제 긴급조치 제10호로
국민촛불을 끄려
메이드 인 국정원
박근혜정부가
'내란음모'를 들먹이며

진보당 시민사회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조봉암 김대중 김영삼을
정적으로 몰아
가두고 처형하고
제명하던 수법이다
온 천하가 다 알건만
조작사건으로
부정선거 규탄 촛불에
맞서겠다는 거다
"책임져라"던 그 외침에
돌아온 대답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진리의 부식들은
부딪칠수록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석기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처럼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더 큰 하나로 뭉쳐
햇불이 되어
싸워 나가리란 것을
비 개인 아침에
1인 시국선언인 양
한 편의 시를 올린다



마산 어시장 오늘만 같아라

항구도시 마산의 추억은
세월이 가도 새롭네
옛 선창가 뱃고동소리
아련히 들려오고
갈매기들 날으는 곳
우리 부모 땀흘려 일했던
그 바다에 깃든
회한이 되살아 나는가

오늘 어시장 축제
시장통 삶을 살필 겸 해서
횃집골목 찍고
건어물 상회 지나
상인회까지 갔다가
행사장 한바퀴 돌았네
품바도 보고
천막 야시장 풍경도
카메라에 담았네
가수 남진 공연에
시민들이 열광하더라
마산만 야경은 미루고
저녁 먹으러 들른
낙지마을 식당에서
아는 얼굴들
많이도 보았구나
전어무침에 소주 한잔
마시며 인사나눴던
내 고향 밤은 깊어라
추석 별초 대신
배 기관일 하던 아버지
반찬가게 꾸린 어머니
흔적을 더듬으며
어시장을 꺼안았네
바다 매립 전
남성동 그 자리를
아프게 돌아보았어라

대
모
죽
나
10

다들 깊이 잠들었는가
저 귀뚜라미는
밤새 울어 쌓는데
한순간 들려오기를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규탄 소리같구나
SNS를 달군
핫이슈가
한밤중에도 뜨네
가을의 시작이거늘
정치권력이란
유신독재를 꿈꾸는가
돌아갈 수 없지
풀벌레조차
아우성치듯 하건만
그 시절을
꼬집어 낸 자들이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말자
늘 깨어 있고
행동하는 양심들처럼
내 가슴은 뜨겁다
미친 바람이 몰아쳐도
사람사는 세상을
목놓아 부르며
우리 갈 길은 가리라



먼 훗날 추억으로 남겨두고픈

내겐 정식상도 오랫동안이네
교리반 참석했다가
미사 마치고 고교 친구와
점심을 함께 나누었다
밥 찬 국을 같이
먹어본 지가 언제였던가
성당 아니었으면
일요일 아침 일찌기
일어나기란 좀체 없다
주말엔 종일 누웠다

웬 어깨통증에
몸이 착 가라앉아 버렸다
공동선을 실천하자면
미뤘던 영세도 받고
참된 신앙 속에서
새길을 찾아봐야겠다
성당 마당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촉구 서명도 했다
예비신자로 오늘은
교리서를 받고
묵주기도 방법을 배웠다
이제 때가 된 건가
2000년 무렵
처음 찾았고 4수째다
병수와 순철이 나
셋이 둘러앉은 밥상이
어쩌면 내가 꿈꾸는
한데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시작일지니
교리반 첫날치곤 괜찮다



방사능 불안은 어시장뿐 아니다

옛그제 어시장축제 즐겼는데
오늘 경남신문을 보니
일본산 수산물 여파때문에
죽었다는 기사가 충격적이었다
전어회 먹고 소주 마시며
공연 관람하고 놀았거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을 잊고 지냈다
해류를 타고 흐르거나

대기 중에 섞이거나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미 태평양 동해까지
일본 산악지역까지
방사능 물질이 퍼졌다니
생선 채소는 말할 것 없고
화장품 과자마저
사지 않는 지경이란다
체르노빌에 이은 후쿠시마
2011년 3월 원전사고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이토록 위험하거늘
상인회는 안내문조차 없었다
소비자들은 상인들 말도
쉽사리 믿지 않았단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생선도 불안한 세상이다
원전 5위 한국도
냉각수 유출 폭발사고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한다



우리는 어차피 한배의 운명이니

밤바람이 꽤 쌀쌀해졌다
가을잠바를 꺼내
씻어 널어놓고 나왔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짧고 쉬우면서
함축된 시를 쓰야지
오동ڑ이 날리고
저 능소화가 다 지고

찬서리가 내리기 전에
우편함을 바라보는
남모를 기다림이
어서 끝났으면 싶다
고등법원 등기우편이야
우체국에서 찾겠지
추석 차례 지낼
수중의 돈도 없지만
시 한 편이라도
고향에 띄워 보내야겠다
세상이야 거꾸로 돌고
광풍이 몰아쳐도
갈 길이야 정해진 것
국정원 국기문란을
심판하는 길이다
내란음모란 수를 던진
야권 분열공작에 맞서서
진보당을 지켜내고
축볼이 이기는 그날을
꼭 보고야 만다
달도 별도 없는 새벽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망은
그 누구도 끌 수가 없다



가을은 서정적으로 오지 않네

간밤에 비가 내렸다
타는 내 가슴을
적셔주는 듯
어찌 나쁜이었으랴
잠 못 이뤄
뒤척이는 이들이
고향 생각에
아니면
국정원 거수기 노릇하는
국회 열받아서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 오늘
바람 잘 날이 없지만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다시 일어나 가자고
촛불이 부른다
이건 아니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마녀사냥 시대가
결코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고볼 것인가
싸울 것인가
선택할 새벽이다



역경 逆境에서 피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꽃은 고난을 이기고 피어납니다.
심재  

다시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살어리 청산에 살어리랏다
이 노래에 깃들인
떠도는 삶들의 심정이
언뜻 되살아오는 날
저 고운 최치원 선생처럼
가야산으로 들어가
물혀 지낼 수도 없네
무신정권에 수탈당했던
농민의 유랑길이
"어딴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이 청산별곡 고려가요에
알알이 땀혀 있거늘
낮이라도 들고
초적이 될지언정
풀뿌리를 캐 묵으며
구차하게 살까
지금 내 마음은 그렇네
부정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빼앗은 자들에게
국민의 삶은
그 어디엔들 있을까
시대를 뛰어넘어
민중은 언제고
저항하며 길을 헤쳐왔다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고 싶다

환절기 몸을 챙겨야겠네
내 마음 같지 않게
가 봐야 할 곳을
거르는 일이 잦구나
들녘에는 벼들이 익어가고
황금빛으로 물들어도
한중FTA땀에 걱정이네
추석 대목이건만
어시장은 한숨짓고
서민들 지갑은 얇아졌다
정녕 수확의 계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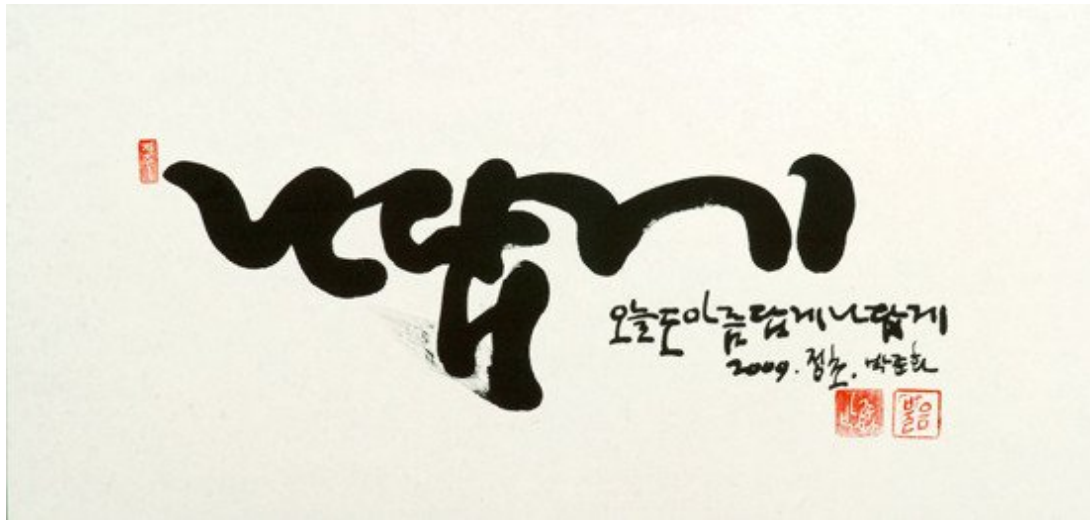
올해도 고향마을
찾아가기 어려워라
뭣 하나 기쁜 소식이란
들려오지 않는다
신앙을 찾는 사람들
그 심정도 알 만하다
화무십일홍이라
유신독재가 어떠했던가
결국 무너진 것을
가을이 가을다우려면
정치가 정치다우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세대는 바뀌어 근 70년이
되었건만 남과 북은
오도가도 못하는 오늘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새벽에 깨어난
내 몸도 마음도 무겁다



여러분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내게 시는 곡기와 같다
한 며칠 끊으면
힘이 쏙 빠져버린다
머리가 텅 빈 듯
뭔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다
시인의 숙명이런가
원고료도 없는
시를 쓰고 올리면서
지새운 밤은
몇몇 해나 되었나
머잖아 또 한 권의 시집을
퍼낼 작정이다
재심 재판이 어서
끝나면 오죽 좋으련만
그 전에 널까 말까
고심하는 시인아
한때 통일시 한 편
써서 부치다가
긴급조치 9호에 걸려

징역 2년 받은 적 있지
교사 해직도 당했던
유신시대처럼
표현의 자유조차
위태로운 시대이다
정설교 시인이 잡혀갔다
천안함 영화가
상영금지 되었다
사람이 곡기를 못 굶듯
고난 속에서 꽃피는
울곧은 시를
나는 계속 쓰고 싶다



나를 지켜가는 하루를 살자

때로 거꾸로 생각하기
의 식 주에서부터
우리 역사 얘기까지
길들여진 틀을 깨부수고
다시 시작하는
자주적 삶이 어떨까
술한 말과 글
세상을 속였거늘
시 한 줄이라도
울곧게 쓰야겠다는
깨우침이 인다
어쩌면 일생을 좌우할
한 사람의 운명이
지금 내 눈에 선하다
지식인 노릇
시인 노릇

거리로 나서는
촛불처럼 소중하다
여럿이 함께
실천하는 공동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순례하듯 가자

순례

블로그 자신을 돌아보라 <http://blog.daum.net/youpoet>

저자 해당화

발행일 2013.09.13 01:31:13

 블로그